

The Image of 'KWANGYA' in Korean Pop Music (K-Pop) : A Study of Symbolic Commonalities with Biblical Wilderness Theology

Jeong Do An · Jae Duck Seo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Abstract

Purpose of the Study :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ymbolic commonalities between the image of 'KWANGYA' in Korean pop music (K-Pop) and the biblical wilderness theology. By analyzing the interaction between modern popular culture and ancient religious texts, this research seeks to investigate how the narrative of the biblical wilderness can be re-interpreted and received by contemporary youth.

Contents and Method : This study analyzes the image of 'KWANGYA' as depicted in the worldviews of Korean pop songs by artists such as Lee Yuk-sa, Kim Min-ki, and aespa. It examines how this image connects with the symbolic aspects of the biblical wilderness. In the Bible, the wilderness is a space symbolizing trials and overcoming, spiritual growth and self-discovery, and the coexistence of chaos and order. These characteristics are observed not only in Lee Yuk-sa's poem 'Wildernes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ut also in the imagery of the wilderness in the 1970s-80s folk songs and 2020s K-Pop songs. In particular, in K-Pop, the wilderness is utilized as a symbolic space where protagonists undergo and overcome various challenges and trials, leading to spiritual growth and self-discover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how the biblical wilderness narrative can be newly received by contemporary youth through this interaction between modern popular culture and ancient religious texts.

Conclusion : The wilderness in K-Pop symbolizes the trials, self-discovery, and spiritual growth experienced by youth, encapsulating the process of finding order within chaos, much like the biblical wildernes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how popular culture and religious symbolism interact to create contemporary meaning, showing how the message of the Bible is reinterpreted and received in today's culture.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Christian education today should consider reinterpreting and utilizing biblical symbols within new cultural contexts.

Key Words

Wilderness, Biblical Theology, K-Pop, Popular Culture, Symbol Education,
Wilderness Theology

Received August 22, 2024 Revised September 28, 2024 Accepted September 29, 2024

Author : Jeongdo An, Assistant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comemessiah@gmail.com

Co-author : Jaeduck Seo, Assistant Professor,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jaeduckseo@htus.ac.kr

한국 대중가요(K-Pop) 안에서의 '광야'(KWANGYA) 이미지 : 성서적 광야신학과의 상징적 공통점 연구*

안정도** · 서재덕***

(장로회신학대학교) · (호남신학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 대중가요(K-Pop)에 나타난 '광야'(KWANGYA) 이미지와 성서적 광야신학 간의 상징적 공통점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대 대중문화와 고대 종교 문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성서의 광야 서사가 현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이육사, 김민기, 에스파(aespa) 등이 노래하는 한국 대중가요 속 세계관에 나타난 '광야'의 이미지를 분석하며, 이 이미지가 성서적 광야의 상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찰한다. 성서에서 광야는 시련과 극복, 영적 성장과 자기 발견, 혼돈과 질서의 공존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이러한 특징들은 일제 강점기 이육사의 시 '광야' 뿐만 아니라, 1970-80년대 민중가요, 그리고 2020년대 K-Pop 노래 속 광야 이미지에서도 공통으로 관찰된다. 특히, K-Pop에서의 광야는 주인공들이 다양한 도전과 시련을 겪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영적 성장과 자기 발견을 이루는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현대 대중문화와 고대 종교 문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성서의 광야 서사가 현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결론 및 제언 : K-Pop의 광야는 청소년들이 겪는 시련과 자기 발견, 영적 성장을 상징하며, 성서의 광야가 그러하듯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대중문화와 종교적 상징이 상호작용을 하며 현대적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성서의 메시지가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수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기독교 교육에서도 성서의 상징을 새로운 문화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광야, 성서신학, K-Pop, 대중문화, 상징교육, 광야신학

□ 2024년 8월 22일 접수, 2024년 9월 28일 심사완료, 2024년 9월 29일 게재확정

* 본 연구는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2024. 7. 13. 성결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주 저 자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조교수, comemessiah@gmail.com

*** 공동저자 :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jaeduckseo@htus.ac.kr

I. 들어가는 말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과정은 단순한 교리의 습득을 넘어,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해석학적 탐구를 요구한다. 이는 고대 종교 문헌인 성서의 메시지를 오늘날의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시간적·문화적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성서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와 교훈을 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고대의 메시지를 현대사회, 특히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은 상당한 지적 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전은 현대인들에게 과연 성서의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특히, 성서 내에서 '광야'라는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서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 겪은 시련과 성장, 그리고 예수가 광야에서 경험한 시험 등, 신앙의 시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광야의 이미지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신앙적 여정과 시련,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상징하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광야는 고대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학적 상징이지만, 그 의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광야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신앙의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고대 성서의 광야 이미지가 현대 한국 대중음악, 특히 K-Pop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문화 소비자,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광야의 이미지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K-Pop에서 광야가 전달하려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현대 대중문화와 고대 종교 문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광야라는 고대의 종교적 상징이 현대 청소년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성서의 광야 서사가 어떻게 현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대와 현대, 종교와 대중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성서의 메시지가 현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의 지속적인 의미를 현대 사회 속에서 발견하고, 그 실천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II 장에서는 성서에서 나타나는 광야의 신학적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하며, III 장에서는 한국 대중가요 속 광야 이미지의 진화를 이육사, 김민기, 에스파(aespa)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서적 광야의 메시지가 현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재해석되고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고대의 신학적 상징이 어떻게 현대적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기독교 교육과 문화적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성서학 안에서 광야신학

히브리어 명사 **רַמְבַּר** <미드바르>은 “물이 부족하여 농업과 정착 생활에 부적합한 건조 또는 반건조 지역”을 의미한다(Shemarjahu, 1984, 664). 따라서 미드바르는 사막과 대초원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지칭하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경작이 거의 불가능했다. 예레미야서(예레미야 9:9; 23:1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반유목민이 이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갔으나 농업 정착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광야에 대한 정의는 성서에서 광야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성서에서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 특성을 넘어 신학적·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 광야는 인간 생존이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경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레미야서에서는 광야를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의 장소로 그리며,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미드바르는 성서 전반에서 신학적 의미를 함축하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광야의 이미지는 오늘날의 신앙적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신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광야는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의미로 등장하며, 이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1. 구약의 광야신학

구약에서 광야는 중요한 서사적 배경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40년 동안 머문 곳이 바로 광야였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함과 동시에, 불순종과 의심으로 인해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출애굽과 광야 방랑 전승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새로운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의 기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행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구약 전체에서 나타난다. 구약에서 광야는 출애굽을 대표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며, 시편 78편 40절에서도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라는 구절을 통해 출애굽 전체를 광야라는 표현으로 압축하

여 표현하고 있다.

출애굽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광야는 구약에서 주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배반 행위를 강조할 때 사용되며, 둘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할 때 사용된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교훈적 성격의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나타나며(시편 78, 106편; 예레미야 2, 31장; 에스겔 20장; 호세아 13장; 아모스 2, 5장), 후자의 경우는 주로 찬양시에서 나타난다(시편 29, 68, 136편).

광야와 관련된 또 다른 서사적 배경은 전기 예언서인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다(삼상 23-26장). 이 단락에서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묘사되지만, 역설적으로 다윗에게는 사울을 피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삼상 23:7-15; Klein, 2004,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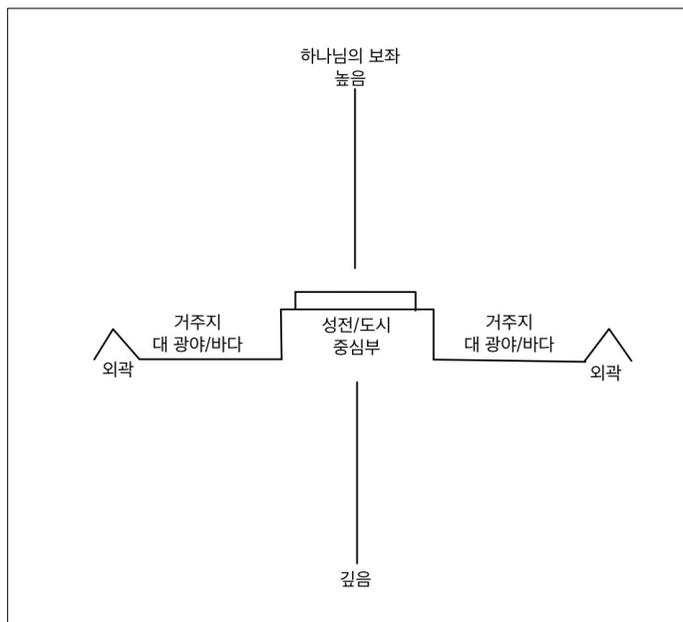
다윗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광야에 대한 이해는 시편의 개인 탄원시와 찬양시에서도 같이 나타난다(시편 42, 63, 102편). 예를 들어, 시편 42편에서는 광야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광야와 관련된 짐승과 지리적 특징을 통해 광야의 적대적인 성격이 환유적으로 표현된다(Riede, 2012, 2). 특히, 시편 63편의 표제어는 광야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동일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다윗의 시편 중 하나인 시편 63편은 그 표제어를 통해 다윗 이야기와 시편에서 언급되는 출애굽 모티브와 연결된 광야를 보여주며, 이 이해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시편 6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다. 후대에 삽입된 시편 63편의 표제어는 이 시편에서 드러나는 기도자의 고난을 다윗이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과 연결하여 바라보게 하며, 구약에서 광야라는 표현이 개인 혹은 공동체가 겪는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서재덕, 2022, 55-57). 무엇보다도, 광야를 통해 서술되는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역사적인 고난(시편 42편)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차별받는 개인의 사회적 억압(시편 102편)을 반영한다(Hossfeld & Zenger, 2008, 44).

이와 같이 구약에서 광야라는 표현은 다양한 서사적 배경을 지니지만, 공통으로 ‘사람에게 적대적인 장소’라는 이해를 기초로 한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출 16장; 민 11장)과 광야의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신 이야기(출 17장; 민 20장)의 발단 역시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물이 없어 발생한 불만과 소요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출애굽 전승에서도 ‘광야’는 곧 ‘사람에게 적대적인 장소’로 이해된다.

이러한 광야 사상은 근본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의 공간 이해를 반영한다. 특히, 시편 42편은 성전 중심의 공간 이해가 반영된 ‘광야 사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자신을 헤르몬 지역의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에 비유하며, 이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시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을 표현한다(Spieckermann, 2023, 429). 이 시편에서 אִפְיִקִּימִים <아피케 마임>은 우기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와디를 가리키며, 시편 42편 6절의 ‘요단 땅’과 ‘헤르몬’에 대한 언급은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즉 헤르몬 지역의 광야에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어느 때에 나아갈까”라는 시인의 탄식은 시편 42편 1절과 함께 하나님과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나타낸다(Böhler, 2021, 780). 결과적으로, 시편 42편에서 광야는 생명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죽음의 공간이라는 성전 중심의 공간 이해를 반영한다.

이처럼 구약성서의 공간 이해에서 광야는 인간이 생활하는 수평적 공간에 위치하지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진 광야는 언제든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실체화된 혼돈의 세력으로, 구약에서 광야는 바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활을 위협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고대 근동에서는 광야의 죽음의 힘이 사람이 사는 도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성벽과 성문에 주술적 방어 수단을 마련했다(Janowski, 2002, 42). 야노브스키(B. Janowski)는 이것을 다음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한다.



[그림1] 고대근동의 성전중심적 공간이해

광야를 사람에게 적대적인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주로 광야의 기후적 특징에서 기인한다. 극한의 기온, 물 부족, 그리고 거의 모든 수분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강한 동풍(호세아 13:1

5; 히브리서 1:19 참조)이 이러한 적대적 환경의 주된 원인이다. 크리스토프 바르트(C. Barth)는 이러한 광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찰과 경험은 모든 생명체가 사막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무덤의 거의 모든 특징, 즉 황량한 영원, 허무함 속의 감금, 외로움과 버림, 굶주림, 목마름, 무력함, 파괴와 죽음은 동시에 사막의 특징이다. 누구든지 광야로 나가는 사람은 죽은 자의 영역을 떠올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직면하게 된다.”(C. Barth, 1987, 86; 히브리서 6:18; 출애굽기 14:3; 사무엘상 30:1; 시편 55:8; 민수기 20:2-5; 사무엘하 17:29; 시편 107:4-5; 이사야 14:17; 이사야 17:9; 예레미야 22:6; 히브리서 12:24; 시편 107:40 참조)

따라서 광야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성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된다(신명기 1:19 참조). 이처럼 구약은 광야라는 표현이 지닌 환경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하는 절망적 정황을 기술한다. 또한, 광야는 선지자들의 심판 예언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선지자들의 멸망 선언은 종종 경작지나 도시가 광야로 변할 것이라는 선포와 연결되며, 이는 예레미야 50:39과 스가랴 2:13-15에서 잘 드러난다. 광야는 이러한 적대적 특성으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구약성서에서 광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장소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웨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거나, 그들의 땅을 사막으로 만들겠다는 경고를 하였다. 이는 광야가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광야는 구약성서에서 자연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혼돈과 적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곳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약은 광야를 부정적인 공간으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출애굽 전승에서도 광야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서술되며, 광야에서의 시간을 ‘신혼의 때’로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시기로 묘사한다(렘 2:2,6)(Schmidt, 2008, 73-74). 또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시편 42편)이며, 다윗 전승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장소로 나타난다(시편 63편).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야는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초월적(수직적) 공간에 존재하는 혼돈의 세력이 내재적(수평적) 공간 안에서 구체화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광야는 부정적인 공간에서 이상적인 공간으로 전환된다.

광야의 의미가 부정적인 장소에서 이상적인 장소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심과 관련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개념은 고전적 성전 신학을 넘어선다. 고전적 성전 신학은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술되며, 이 신학에서 광야는 죽음의 공간으로만 나

타난다(Leuenberger, 2014, 246; Bernd Janowski, 2002, 32-57).

이러한 맥락에서 광야가 이상적인 공간으로 서술되는 신학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광야가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상징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영적으로 표현한 데 있다. 무엇보다 출애굽 전승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으로 서술된다. 하나님의 임재는 수많은 시각적 단어로 표현되며, 이를 ‘하나님의 영광’ כבוד <크보드>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불붙은 가시 떨기나무나 구름 기둥-불 기둥, 회막을 덮은 구름 등이다. 또한, 성막을 가리키는 용어인 מִשְׁכָּן <미쉬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주지가 옮겨질 수 있음을 전제한다(Schmidt, 1992, 91-92; J. Seo, 2021, 154). 이러한 하나님의 거하심을 영적으로 표현한 배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사건이 자리 하며, 이를 통해 의심되는 하나님의 부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강조하게 된다(서재덕, 2021). 이를 통해 고전적 성전 신학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이 거하실 곳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학적 작업을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 중 광야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로 백성을 선택하심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된다. 즉, 하나님의 영적 거하심에 담긴 주권적 자유를 통해 광야는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광야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는 무엇보다도 시편 42편에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반복되는 5절과 11절에서 시인의 독백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시인을 찾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낸다. 이러한 기도자의 확신은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영적 임재에서 기인한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영적 거하심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표현한다. 에스겔 1-11장은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11장 16절에서 성전을 버리신 하나님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포로로 끌려간 백성과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신다(Alen, 1990, 334-345). 이처럼 구약에서 광야는 부정적인 공간으로만 그려지지 않으며, 백성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거하심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2. 신약의 광야신학

히브리어 “미드바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 ἔρημος <에레모스>는 “물이 부족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지역 또는 방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척박한 대초원”을 의미한다(Walter, 1981, 128; 마태복음 24:26; 누가복음 15:4 참조). 구약성서의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광야는 위험한 장소로 묘사된다. 누가복음 8:29에서는 황량한 사막이 귀신들이 거하는 장소로 인식되며, 이는 마태복음 12:4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구절들은 사막이

단순히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영적 위험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린도후서 11:26과 히브리서 11:38 역시 사막의 위험을 언급하며, 이는 사막이 인간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공간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광야는 단순히 위험의 공간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광야는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전환의 공간’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 등장한 사실은 구약의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이사야 40장 참조; 마가복음 1:1-4; 요한복음 1:23). 그의 사역은 ‘회개’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구약성서의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며, 뒤에 오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전환적 가교 구실을 한다.

신약성서에서 광야는 또한 ‘피정의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예수는 군중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해 광야를 찾았으며(마태복음 14:13; 마가복음 1:45), 제자들이 평안을 찾기 위한 피신처로 광야를 사용하기도 한다(마가복음 6:31). 사막의 고독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강렬한 유혹에 맞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로 기능한다(마가복음 1:35; 누가복음 5:16; 마가복음 1:12-13).

3. 성서를 관통하는 광야신학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야는 성서의 서사적 배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구약과 신약의 세계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성서에서 드러나는 광야의 의미는 모순적이며 상징적이다. 이러한 광야의 이미지는 성서 줄거리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앙 공동체에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무엇보다도 시편에서 기도자는 마치 자신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며, 이를 통해 광야는 기도자의 현재적인 고난을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신화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여기서 ‘신화적’이라는 표현은 문학적이거나 친문학적인 장르로서의 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의 장르 안에 내재한 요소나 기능을 통해 이상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Zenger, 1999, 233).

신화적 공간으로 표현되는 광야는 부정적 의미와 이상적 의미가 공존하는 ‘모순적 공간’이다. 즉, 부정적 공간으로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상징하며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낸다. 반면,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연결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초월하는 공간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광야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야는 ‘부정적 공간’이다.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

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탄의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마태복음 4:1-11). 이처럼 성서 전반에서 광야는 신앙의 본질을 시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무대로 그려진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시험을 경험한 시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시기는 극한의 기온, 물 부족, 강한 동풍 등 자연적 위협뿐만 아니라, 신앙의 시험과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함께 겪는 시기였다.

둘째, 광야는 ‘전환의 공간’이다. 전환의 공간으로서 광야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은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졌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이는 광야가 단순한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준비의 시간임을 상기시킨다. 구약과 신약에서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예수가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준비하는 과정이자,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수의 사역이 광야에서 사탄과의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창세기 2장과 대조를 이룬다. 아담이 창조의 본래 평화를 파괴한 반면, 예수는 광야에서 시험을 극복하며 그 평화를 회복하여 새로운 낙원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Riede, 2001, 356-357).

셋째, 광야는 ‘만남의 공간’이다. 신약에서 광야는 단순한 피신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장소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출애굽기 13:21-22).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광야가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임을 의미한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광야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역을 준비했다. 이 고독한 장소는 예수가 유혹과 싸우며 자신의 사명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광야의 ‘만남의 공간’ 역할은 예수 이후, 광야에 모인 다른 메시아 운동 그룹에서도 엿볼 수 있다(사도행전 21:38; F. Josephus, 1998, 259-261).

이러한 내용은 광야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를 지닌 장소임을 시사한다. 광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장소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명을 받는 장소로 이해된다. 따라서 광야는 물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신학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구약의 전통이 신약에서도 이어지며, 광야가 야훼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과 회개의 부르심을 상징하는 장소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III.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난 광야 이미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야’는 기독교 성서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한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영적 성장을 상징하는 장소로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광야의 이미지는 오랜 세월 동안 본래 종교 의미를 넘어, 문학, 예술, 음악 등 다양한 문화적 표현 속에서 재해석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두는 점은, 광야 이미지가 현대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K-Pop에서 광야 모티프가 눈에 띄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K-Pop의 여러 예술가들은 광야를 자아 탐구, 도전과 극복, 그리고 초월적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하며, 이는 팬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이바지한다. 광야 모티프의 대표적인 예로 ‘SM 엔터테인먼트’의 ‘SMCU’(SM Culture Universe) 세계관 속 ‘광야’(KWANGYA)를 들 수 있다. 이 세계관에서 광야는 가상과 현실, 초월과 일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징적 공간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어, K-Pop 아이돌 그룹 ‘에스파’(aespa)의 <Black Mamba>와 <Next Level>에서는 광야가 가상현실과 연결된 세계로 묘사되며, 캐릭터들이 맞서 싸우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대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도전과 극복의 과정을 반영하며, 청중에게 강렬한 시각적·감정적 인상을 남긴다.

이와 같은 현대 K-Pop에서의 광야 모티브 사용은 전통적인 종교적 상징을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며, 광야라는 상징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야 모티프의 현대적 해석과 그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Pop의 모체인 한국 대중가요 속에 나타난 ‘광야’ 이미지를 시대별로 살펴보고, 각 시대의 문화 속에서 변화해 온 광야 이미지의 특징과 현재 K-Pop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깊이와 그 영향력을 조명하고자 한다.

1. 1940년대 이육사의 <광야>(曠野) 이미지

1)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 문화를 통한 정치적 행동

한국 대중문화에서 광야 이미지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이육사(李陸史)의 시, <광야>에서 강렬하게 드러난다. 소위 ‘저항시인’으로 불리는 이육사의 <광야>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쓰인 저항시로, 광야라는 공간적 상징을 통해 자유와 저항의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육사는 독립운동가로서, 아나키즘에 영향받은 민중 지향적 사유를 시가(노래)의 형태로 표방하며, 광야를 통해 이러한 사상을 드러냈다(박지영, 2004, 152; 157). 1945년 <자유신문>

에 기고된 이육사의 시 <광야> 원문은 다음과 같다.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스랴
 모든 山脉들이 / 바다를 戀慕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곤을 犯하든 못하였으리라 /
 끈임없는 光陰을 / 부지런한 季節이 피여선 지고 / 큰 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千古의 뒤에 /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 이 曠野에서 목노아 부르게하리라
 (자유 신문, 1945.12.17.)

이 시는 일제의 억압 아래에서도 꺾이지 않는 독립 의지와 민족의 자존심을 노래하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강한 감동과 영감을 준다. <광야>는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에 걸쳐 이육사가 창작한 작품으로, 당시의 암울한 시대 상황과 그에 대한 저항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는 한국 민족에게 극심한 억압과 고통을 안겨준 시기였으며,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저항 문학을 통해 독립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광야>는 그러한 저항 문학의 대표적인 예로, 시인은 이 작품을 통해 정치적 독립의 열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육사는 문화 예술을 통해 단순한 미학적 회귀를 넘어 윤리적, 실존적 회귀에 대한 기대를 담은 ‘포-에틱’(Po-étique) 개념의 문예적 정치 운동성을 지향했다(조은주, 2017, 166).

1938년은 일본에서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고, 곧바로 조선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해였다. 이로써 조선은 본격적인 전시 체제로 돌입하였고, 병참기지화가 현실화되었다. 같은 해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되면서 조선 민중은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38년 10월 중일전쟁의 결과가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당시의 절망적인 시대적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육사는 항일 지사로서 구체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쳐 있었으며, 모든 저항적 행위도 차단된 상태였다. 그는 끊임없이 지식인의 ‘행동’ 문제를 ‘글쓰기’라는 방식으로 사유하며,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육사는 행동이 아닌 문학을 통해 저항의 방향성을 모색하였고, 그 핵심 키워드로 ‘광야’를 언급하였다(조은주, 2017, 175-176).

2) 내용 분석과 의미

시의 구조와 내용 분석에 있어서, 이육사의 <광야>는 총 다섯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연에서 광야는 태초의 창조 세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라는 구절은 태초의 원시적 자연 상태를 상기시키며, 억압받지 않는 순수한 자유를 암시한다.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에서 광야는 ‘고난과 시련’의 장소로 그려진다. 여기서 광야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일체의 억압 속에서 민족이 겪는 고통과 역경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 희망을 잃지 않고, 광야를 통해 자유와 독립을 향한 의지를 더욱 다짐한다.

네 번째 연에서는 광야의 자연과 더불어 민족의 역동적인 힘이 강조된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 / 겨우겨우 살아왔다”라는 표현은 억압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민족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이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굳건히 살아가는 자연과 맞물린다. 마지막 연에서는 광야의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다.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라는 구절은 시인의 강한 결의와 다짐을 나타내며, 광야가 단순한 시련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의 공간임을 암시한다.

이육사의 <광야>에서 시어와 상징은 작품의 중심 주제를 강력하게 드러낸다. <광야>는 창조 자연의 광활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며, 억압받는 현실 속에서도 자유와 독립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담고 있다. 또한, <광야>는 시련과 고난의 공간으로서 민족의 저항 의지와 생명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적 상징은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민족의 고통과 희망을 깊이 있게 전달한다.

조은주에 따르면, <광야>는 이육사가 설정한 행동의 방향성과 사상성이 응축된 메타포로 읽힌다. 이육사의 시에서 광야는 단순히 넓은 벌판이 아니라, “한 발 재겨디딜 곳조차” 없는 칼날 위의 좁고 위태로운 공간이다. 이 광야는 ‘매운 계절의 찻죽’이 암시하는 폭력적 논리로부터 도망치듯 떠난 시적 주체의 심리적 상황과 결부된 공간이다. 비록 광야는 현실적 공간으로서의 ‘북방’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1930-40년대의 ‘북방’, 즉 ‘만주’와 관련된 담론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작동된다(조은주, 2017, 178).

이와 같은 광야의 이미지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당대의 사회적·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한, 광야는 단순히 땅의 공간만이 아니다. 1연, 2연, 3연에서는 천·지·인 삼재의 기원과 생성이 역동하는 연결의 공간이며, 4연과 5연에서는 천·지·인 공간이 역사적 시공간으로서 광야로 펼쳐진다. 종합적으로 볼 때, 광야는 창조적 역동성이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공간이다(박순원, 2011, 107).

결론적으로, <광야>는 시적 주체가 겪는 내적 갈등과 불안, 그리고 폭력적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상징하는 동시에, 일제강점기 조선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저항과 생존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점에서 <광야>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집단적 무의식과 맞닿아 있으며, 문학적 상상력과 정치적 현실을 교차시키는 중요한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 1970-80년대 한국 민중가요에서의 ‘광야’ 이미지

1) 사회적 배경: 정치 운동과 청년 통기타 문화의 연합

1970년대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후, 군사정권은 급속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며 개발 독재의 성격을 강화했다. 급변하는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모순이 심화하면서 민중의 저항도 커졌다. 이 시기에는 3선 개헌, 전태일의 분신, 광주 대단지 사건, <오적> 필화사건, 유신체제의 등장, 위수령과 민청학련 사건, 긴급조치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당시 대중음악과 청년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한국에서 청년문화는 젊은 세대가 문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현상으로, 당시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였다. 비록 ‘청년문화’라는 용어는 1970년대 중반에 등장했지만, 그 현상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젊은이들은 장발과 청바지, 생맥주와 통기타 등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표현하고, 기존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했다. 장발과 청바지는 당대 젊은 세대의 반항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상징했다. 이는 단순한 패션의 변화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독립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생맥주는 젊은이들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의 목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청년문화를 대변했다. 통기타는 이러한 청년문화의 핵심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수정, 2013, 6).

통기타 음악은 1960년대 말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태동하여, 1970년대 중반 강제로 퇴출당하기까지 사회적·정치적 변화와 갈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통기타 음악은 단순히 음악 장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당시 젊은이들의 정서와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김민기의 <아침이슬>을 비롯한 많은 곡이 이러한 통기타 음악의 대표작으로,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노래했다. 청년문화와 통기타 음악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상징적 요소였다. 청년문화는 기존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려는 젊은 세대의 열망을 나타냈다. 통기타 음악은 이러한 청년문화의 중심에 있었으며,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2) 김민기의 <아침이슬> : 자유와 희망의 상징으로서의 광야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1971년 그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한국 대중음악사에 혁명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 노래는 김민기가 작사, 작곡하였으며, 가수 양희은의 목소리를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아침이슬>의 가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하며, 광야를 자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그려낸다. <아침이슬>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가사에서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이라는 구절은 어두운 시기를 지나 희망찬 새벽을 맞이하는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라는 구절은 개인적 고통과 슬픔이 자연 속에서 치유되는 모습을 그려낸다. 특히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라는 구절은 광야를 향한 출발을 자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나타내며, 현실의 억압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70년대는 김민기의 <아침이슬>로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노래는 대중들과 평론가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며, 단순한 오락과 위안을 넘어서 자아 성찰과 사회 비판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문화적 산물로 평가받고 있다(이수정, 2013, 58).

1971년, 김민기는 자신의 앨범을 출시한 해에 반체제 저항시인 김지하를 만났다. 김지하가 중심이 되어 한국 문화에 관한 토론을 벌인 모임인 ‘Poem on Trash’(갯더미 위에 시를)의 약자인 ‘폰트라’(PONTRA)에는 시인, 학자, 화가, 음악인, 영화인들이 모였으며, 이곳에서 김민기는 역사와 현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 모임을 통해 김민기는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후 김민기는 지학순 주교와 김지하를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권의 문화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가진 자들에 의해 왜곡된 예수상을 비판하고, 민중적 의미의 예수상을 구현하려는 내용을 담은 김지하의 희곡 <금관의 예수>에 나오는 노래들을 작곡하였다. 1973년에는 김지하가 희곡을 쓴 연극 <금관의 예수>로 전국 순회공연에 참여하며, 그의 음악적·정치적 활동을 더욱 확장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김민기의 음악이 단순한 예술의 범주를 넘어, 사회적·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는 데 이바지했다.

<아침이슬>의 가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하며, 광야를 자유와 희망의 상징으로 그려낸다. 이러한 상징성은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의 열망을 반영했다. 그러나 1975년 유신 찬반 국민투표 날, 투표 반대 집회에서 이 노래가 시위대에 의해 불리려는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아침이슬>은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모든 대중가요 음반에 건전가요 한 곡을 의무적으로 수록해야 했는데, 금지곡 <아침이슬>이 건전가요 리스트에 포함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아침이슬>이 가진 상징성과 서정성을 반영한 시대적 코미디였다(최규성, 2008).

당시 대중매체에서 사라진 <아침이슬>은 대학생들의 시위 현장, 소외된 노동 현장, 국민의 각종 모임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끈질기게 불렀다. 특히 <아침이슬>은 각종 모임의 대미를 장식하며, 참석자들에게 강한 연대 의식을 안겨주는 마력을 발휘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국민가요가 되었다. 김민기의 노래는 젊은 세대의 정서를 대변하고,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담아냄으로써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3) 문대현의 <광야에서>: 역사 변혁의 공동체화 상징

198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로, 이 시기에 ‘광야’ 이미지를 사용한 또 다른 민중가요가 등장한다. 1984년 문대현이 작사, 작곡한 민중가요 <광야에서>다. 이 곡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 2집에 수록된 안치환이 부른 곡과 김광석의 앨범 ‘다시 부르기 1’에 수록된 곡으로 널리 알려졌다. <광야에서>는 1984년 성균관대학교 음악 동아리 ‘소리사랑’에 의해 처음 불렸으며, 이후 1980년대 학생운동의 중심에서 자주 불리게 되었다. 특히 1986년을 기점으로 학생운동의 현장에서 입에서 입으로 널리 전해지면서 그 영향력이 확산하였다. 처음 레코드로 취입된 것은 1988년 ‘노동자 노래단’의 1집 앨범에서였으며, 이후 ‘노찾사’와 김광석의 앨범에 수록되면서 더욱 대중화되었다.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 이 땅에 피 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 해 지는 서해까지 / 뜨거운 남도에서 / 광활한 만주 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오 / 우리 어찌 주저하리오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 움켜쥔 뜨거운 흙이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는 것처럼,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는 <광야에서>를 마지막에 제창한다. <광야에서>의 가사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억압과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민중 저항의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곡의 가사 중 ‘만주 벌판’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음악적으로는 단순하면서도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장조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0년대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과 김민기로 대표되는 민중가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아침이슬>과 <광야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노래로, 단순한 음악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정치적·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곡은 민중가요의 중요한 예로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대중의 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러

한 곡들에 등장하는 ‘광야’라는 공간적 이미지는 성서에서와 같이 억압된 백성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저항,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며, 민중가요의 본질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4) 1970-80년대 민중가요에서의 광야 의미

김민기의 <아침이슬>과 문대현의 <광야에서>는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억압과 저항을 상징하는 두 곡으로, 두 곡 모두 ‘광야’라는 이미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 곡들에서 광야는 자유와 희망, 저항과 치유의 공간으로 묘사되며, 당시 젊은이들의 정서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된다.

<아침이슬>에서 광야는 개인적 슬픔과 사회적 억압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라는 가사에서 광야는 고난과 시련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점으로 묘사된다. 이는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한 열망을 반영하며, 억눌린 감정과 현실에서 탈출을 상징한다. <광야에서>는 <아침이슬>과 유사하게 광야를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이 곡에서 광야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나아가는 의지의 공간으로, 광야의 이미지를 통해 민중의 저항과 극복의 의지를 드러낸다. 광야는 또한 자연 속에서 새로운 힘과 치유를 얻는 장소로 묘사되며,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는 정신적 힘을 상징한다.

이 두 곡에서 광야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적 공간이다. 광야는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억압을 뛰어넘어 자유와 희망을 찾는 장소로, 저항과 치유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는 1970-80년대 한국의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젊은이들이 느낀 불안과 희망, 저항과 극복의 의지를 반영한다. 따라서, 김민기의 <아침이슬>과 문대현의 <광야에서>에 나타나는 광야의 이미지는 자유와 희망, 저항과 치유를 상징한다. 광야는 이 두 곡에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점으로, 민중의 저항과 치유의 공간으로 묘사되며, 당대 젊은 세대의 정서와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한다.

3. 2020년대 K-Pop 그룹 ‘에스파’(aespa)의 광야(KWANGYA) 브랜드

<아침이슬>과 <광야에서>에서 나타나는 광야의 이미지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2020년대 K-Pop 문화에서도 ‘광야’ 이미지는 새로운 의미로 부여되고 있다. 특히,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예술가들의 노래에서 ‘광야’(KWANGYA)는 구체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서사 공간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 ‘광야’(KWANGYA)는

SM의 메타버스 브랜드로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SM엔터테인먼트, 2022.06.23.). K-Pop 아이돌 걸그룹 ‘에스파’(aespa)는 SM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그룹으로, 그들의 세계관에서 광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스파의 노래 <블랙맘바>와 <Next Level>에서는 광야를 가상의 공간으로 설정하여,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모험과 도전을 상징한다(SM엔터테인먼트, 2024).

1) 광야(KWANGYA) 세계관 서사: “태초에 광야(KWANGYA)가 있었다.”

MZ세대의 대표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설정한 기본적인 세계관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스파의 모든 노래는 ‘SMCU’(SM Culture Universe)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SMCU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주창하는 광야(KWANGYA) 이미지를 반영한 것으로, ‘에테르’(Ether: 무의식의 세계)에서 여과되어 창조된 신화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신비의 장소로 설정되어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공식 계정인 SMTOWN에서 “SMCU the Origin”을 통해 ‘광야’(KWANGYA)라는 공간 서사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설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태초에 광야가 있었다.”(SM엔터테인먼트, 2021).

SMCU의 기원 이야기에서는 “태초에 광야(KWANGYA)가 있었다”라는 명제로 시작하며, 이 광야는 에테르(Ether)로 정의된다. 에테르는 고대와 중세 철학, 과학에서 물질세계의 기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여겨졌던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에테르를 네 가지 기본 요소(흙, 물, 공기, 불)에 더해 다섯 번째 요소로 생각했다. 에테르는 하늘을 채우고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물질로 간주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완벽하고 변화하지 않는 물질로 설명하며, 천상의 물체들이 이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중세와 근대 초기 과학에서는 에테르가 빛의 전달 매체로 여겨졌으나, 1887년 마이켈슨-몰리 실험을 통해 에테르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현대 문화, 특히 판타지와 SF 문학에서는 에테르가 마법의 원천이나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게임, 소설, 애니메이션 등에서는 에테르가 마법 에너지의 근원이나 다른 차원과 연결된 매체로 등장한다(Grant, 2007, 71-73; Shankland, 1964, 16-17).

SM엔터테인먼트가 설정한 ‘SMCU’에서 에테르는 ‘FLAT’(ae들이 살고 있는 세계) 너머의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무규칙, 무정형, 무한의 영역으로 정의된다. 이는 aespa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보다 조금 더 초월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의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에스파는 단순히 데뷔곡 <블랙맘바>에서 현실과 가상 세계가 연결되는 메타버스를 주제로 삼고 있다. 이 노래는 현실 존재와 가상 아바타 자아(ae)와의 연결, 그 연결을 방해

하는 블랙맘바(아프리카 검은 뱀)를 주제로 신화적인 세계관 스토리텔링을 시도한다. <블랙맘바>의 대략적인 가사는 다음과 같다.

I'm addicted,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나의 에스파 /
이런 교감, 너의 존재 날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지 /
난 세상 중심에, you're in the flat / 내 모든 action, 어린 너의 힘을 키워
넌 언젠가부터 synk out / 노이즈같이 보여 / 더 이상 못 찾겠어

넌 유혹해 삼킨 건, Black Mamba

넌 광야를 떠돌고 있어 / 나의 분신을 찾고 싶어
I'm ejected, 선함 만으론 / 너의 거대함을 이기지 못해
I'm exhausted, 너의 존재 모든 / 탐욕들을 먹고 자라 났지
에스파는 나아 둘이 될 수 없어 / Monochrome to colors, 이진 evo-evolution
위험한 장난을 쳐 / 매혹적이지만 널 부정할 밖에 / 모든 걸 삼켜버릴, Black Mamba

넌 광야를 떠돌고 있어 / 내게 맞서 난 질 수 없어
거울 속의 나는 네가 아닐까? / 일그러져버린 환영인 걸까?
다시 너와 연결될 수 있다면 / 너를 만나고 싶어
이제 모든 걸 삼켜버릴, Black Mamba

에스파의 세계관에 따르면, ae(아이)-에스파는 인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 세계의 아바타로, 이들은 서로의 분신이지만 각자의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나비스'라는 인물은 현실 인물과 가상 세계의 아바타를 싱크(SYNK)로 연결해 주며, 이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만나거나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서로의 친밀도에 따라 아바타를 현실 세계로 불러오는 '리콜(rekall) 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 현실과 가상의 멤버들, 즉 ae와 aespa를 갈라놓는 존재는 적대자인 'Black Mamba'(블랙맘바)이다. 현실의 인물들은 가상 아바타와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ae들은 현실 인물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자아로서 점점 더 강해진다.

ae(아이)는 에스파의 또 다른 자아이자, 가상의 아바타로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각 멤버들의 이름 앞에 ae(아이)를 붙이면 '아이카리나'(ae-karina), '아이윈터'(ae-winter), '아이지젤'(ae-giselle), '아이닝닝'(ae-ningning)으로 명명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연결이 방해받기 시작한다. 뮤직비디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전하게 보였던 아바타가 '노이즈화'되고, 그들과 나눴던 대화(싱크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보이지 않게 된다. 곧 둘 사이의 교류를 방해한 존재가 '블랙맘바'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SM엔터테인먼트, 2021).

현실 멤버들은 블랙맘바의 존재로 인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광야(KWANGYA)를 떠도는 ae들, 즉 자신의 분신을 찾기 위해 결의를 다진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에스파는 단순

한 가수가 아니라,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서사를 가진 존재로서, 그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에스파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는 이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메타버스 서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청중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한다.

2) 'Next level'로 향하는 여정 공간: '광야'(KWANGYA)

에스파는 <블랙맘바>에 이어 <Next Level>이라는 곡으로 세계관 스토리를 더욱 구체화했다. 이 곡에서 <블랙맘바>에 등장했던 세계관의 스토리가 'naevis'(나이비스)와 'ae'(아이) 개념을 가사에 더하면서 더욱 발전된다. 가상과 현실이 조우하는 공간, '광야'(KWANGYA)에는 아이돌 그룹의 가상 아바타가 존재하며, 이 광야에서 팬과 아이돌 그룹의 가상 아바타 ae(아이)를 이어주는 조력자가 바로 'naevis'(나이비스)이다. SMCU에서 팬과 아이들은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공간인 광야(KWANGYA)에서 궁극적으로 서로의 현존과 가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SYNK DIVE'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SYNK DIVE는 참여자들이 아이돌 그룹과 함께 자아의 현존과 가상 현실이 일치하는 다음 단계, 즉 Next Level로의 진일보를 의미한다. <Next Level>의 주요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I'm on the next level /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말아/ 결속은 나의 무기

/ 광야로 걸어가 / 위협에 맞서서 [중략]

상상도 못 한 black out / 유혹은 깊고 진해 / 맞잡은 손을 놓쳐 / 난 절대 포기 못 해 [중략]

That's my Naevis / It's my Naevis /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 다음 /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중략]

감당할 수 없는 절망도 / 내 믿음을 깨지 못해 / 더 아픈 시련을 맞아도 / 난 잡은 손을 놓지 않을게 [중략]

Naevis, calling /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 / 광야의 것 탐내지 말아/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건잡을 수 없게 돼 / 언제부턴가 불안해져 가는 신호/ 널 파괴하고 말 거야 [중략]

Black mamba가 만들어낸 환각 퀘스트 / Aespa, ae를 분리시켜놓길 원해 그래

/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비난받고 /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중략]

Naevis! 우리 ae, ae들을 불러봐 / Aespa의 next level "P.O.S"를 열어봐

이건 real world 깨어났어 / We against the villain / What's the name? Black mamba [중략]

결국 난 문을 열어 / 그 빛은 내겐 fire / 난 궁금해 미치겠어 / 이 다음에 펼칠 story,

Next level / Kosmo에 닿을 때까지 / I'm on the next level

/ 더 강해져 자유롭게 /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의 가사의 특징은 단순한 노래 가사를 넘어, 현대 대중문화에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중요한 시도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팬들이 단순히 아이돌을 소비

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세계관에 참여하고 그 일부가 되는 과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은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현실화하고 있으며, 팬과 아이들의 관계를 재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특히, ‘광야’(KWANGYA)라는 공간은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이 아닌, 디지털과 가상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현대 사회의 기술적 진보와 문화적 변화를 상징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나이비스(naervis)라는 조력자의 개념은 팬들이 가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다. 나이비스는 단순히 가상 아바타를 연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팬들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들의 온라인 팬클럽 플랫폼 이름은 ‘광야클럽’(KWANGYA Club)으로 전 세계 팬들이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래 가사처럼, 자신들의 온라인 아바타와 가수의 아바타가 만나는 팬 미팅 문화를 즐긴다. 이는 현대 대중문화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참여 문화(participatory culture)의 한 예로, 팬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창조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팬들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콘텐츠의 공동 창작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는 팬덤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3) ‘광야’(KWANGYA)의 새로운 광야 개념: ‘SYNK DIVE’(연결)이 시도되는 메타버스 공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광야(KWANGYA)는 aespa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을 연결하는 통합된 세계관인 SMCU(SM Culture Universe)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다. 여기서 신화적 가상공간, 스토리텔링의 주요 무대로 상징된 ‘광야’(KWANGYA)는 SM Culture Universe(SMCU)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상징하며, 가상 국가 ‘MUSIC NATION SMTOWN’의 일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광야(KWANGYA)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며, 팬들이 아이들과 더욱 깊이 소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을 창출한다. 또한 팬 커뮤니티 ‘광야 클럽’을 통해 다양한 K-Pop 아티스트와 셀러브리티 팬들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팬덤 문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팬 커뮤니티는 팬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조하는 주체의 역할을 맡도록 유도한다.

SM엔터테인먼트의 현대적 해석에서는 광야가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새로운 도전과 창의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소로 재탄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음악과 문화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광야라는 이미지는 김민기의 <아침이슬>과 <광야에서>에서 시작되어, 현대 K-Pop 아티스트들의 노래와 메타버스 브랜드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의 메타버스 브랜드로서의 광

야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시하며, 과거의 저항과 자유의 상징에서 미래의 도전과 창의성의 상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광야의 이미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음악과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으며, 새로운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SM엔터테인먼트가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비전과도 맞물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V. 한국 대중문화 속 ‘광야’ 이미지의 공통 상징: 자유, 희망 그리고 저항

‘광야’는 한국 문학과 음악에서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해석되면서, 공통으로 저항과 자유, 그리고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육사의 시 <광야>는 일제강점기의 억압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 그의 시에서 광야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민족의 독립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1970-80년대 민중가요 <아침이슬>과 <광야에서> 또한 광야를 배경으로 저항과 자유를 노래하며,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광야는 억압에 저항하고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희망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문화 속의 ‘광야’ 이미지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변화를 담아내는 상징적 장소로 자리 잡았다. 광야는 억압과 고난 속에서 저항과 자유, 희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 K-Pop 그룹 에스파는 광야를 현대적 해석과 가상 세계로 확장했다. 에스파의 세계관에서 광야는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는 메타버스의 공간으로,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묘사된다. 에스파의 광야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징적 장소로, 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창출한다. 이는 전통적인 광야의 이미지와는 다른 현대적 의미를 지니며, 기술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처럼 광야의 이미지는 세대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저항과 자유, 고통과 열망, 그리고 현대적 확장으로 변모해 왔다. 광야는 과거의 고난과 희망을 담아내는 상징적 공간에서 현대의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여전히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남아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광야는 다양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1. ‘광야’의 공동 상징: 자유, 희망 그리고 저항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광야 이미지가 각 세대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

고 해석되었음에도, 그 공통 상징은 자유와 희망, 그리고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화적 이미지의 본질은 성서에서 나타나는 광야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한국 대중음악과 현재 K-Pop에서 나타난 광야의 이미지는 성서의 출애굽 서사와 일맥상통하는 ‘자유와 상징 공간’으로 나타난다. 광야는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한다. 이육사의 시 <광야>에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드러나고, 김민기의 <아침이슬>, 문대현의 <광야에서> 에서도 억눌림으로부터의 자유(해방)를 향한 저항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에스파의 현대적 ‘광야’(KWANGYA) 서사에서도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실존 자유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표현된다.

둘째로, 광야는 ‘희망의 상징 공간’이다. 광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상징한다. 이육사의 시에서는 독립의 희망이, 70~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의 정치적 변화를 향한 희망이, 그리고 2020년대 K-Pop의 한 축인 SM 세계관에서는 가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차원의 희망이 담겨 있다.

셋째로, 광야는 ‘저항’의 상징 공간으로 그려진다. 광야는 구약이나 신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억압과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저항의 공간이다. 이곳에는 일제 강점기, 정치적 억압 시기, 그리고 현실과 가상공간에서의 자아 분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저항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처럼 광야는 자유, 희망, 저항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통해 각 시대의 문학과 음악에서 중요한 상징적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2. 성서적 ‘광야신학’과 대중문화 속 ‘광야’ 이해의 공통점

지금까지 성서에 나타난 광야신학의 특징과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광야 이미지를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와 비교가 기독교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성서에 나타난 광야신학은 ‘부정의 공간’에서 ‘만남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광야가 일종의 영적 전환, 혹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장소로 그려진다. 이 과정에서 야웨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이자 조력자, 혹은 중보자로서 성령(하나님의 영)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은 존재를 변화시키고, 이전의 자아를 초월하는 신앙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성서적 광야신학은 문화 속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며,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는 역사와 결합하여 유사한 서사를 형성한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시절, 독재 정치와 비인간화된 사회를 변혁하려는 민주화 운동의 공간, 그리고 2020년대의 새로운 메타버스 속에서 경험하는 디지털 자아 분리 현상 같은 시대적 도전과 위기를 광야는 문화 속에서 이미지로 대변하고 있다.

성서의 광야신학은 ‘부정의 공간’에서 ‘만남의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영적 전환과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는 야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며, 성령과의 조우를 통해 이전의 자아를 초월하는 신앙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신학적 구조는 한국 대중문화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결합하여 서사를 형성한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광야 이미지는 일제강점기의 시련, 독재 정치와 비인간화된 사회를 변혁하려는 민주화 운동, 그리고 2020년대의 디지털 자아 분리 현상 등 시대적 도전과 위기를 상징한다. 이는 성서적 광야신학의 구조와 유사하며, 부정과 시련의 공간을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만남과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성서의 광야신학과 한국 대중문화 속 광야 이미지를 비교해 볼 때, 첫 번째로 공통으로 발견되는 광야의 이해는 ‘부정의 현실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성서와 한국 문화 속에서 ‘광야’는 생명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기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초월의 공간’으로도 그려진다. 다시 말해, 광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광야라 불릴 만한 황무지나 사막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러한 성서적 광야의 양가적 이미지가 대중문화 속에서 공통점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사료를 살펴볼 때, 광야는 기독교인이 이스라엘 배경의 사막보다는 ‘넓은 초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험지에 의지하여 포를 쏘는 것이 바로 저들의 장기이지만 평원(平原)·광야(曠野)에 나왔을 때는 한번 포를 쏘 다음 건마(健馬)와 철기(鐵騎)로 공격해 들어간다면 다시 그 장기를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1일 병인 1번째 기사). 또한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중 3장에서 한 나라에 관해 서술하는데 광야를 넓은 평원으로 서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비록 땅의 넓이와 인구의 수는 한에 미치지 못하나, 다만 고구려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의 나라이므로 웅거하여 지키기에 편리하여 적은 군사로도 한의 많은 군사를 방어하기에 넉넉하며, 한은 평원광야(平原廣野)의 나라이므로 침략하기가 용이하여, 고구려가 비록 한꺼번에 한을 격파하기는 어려우나 자주 틈을 타서 그 변경을 시끄럽게 하여, 피폐하게 한 뒤에 이를 격멸해야 할 것이다.”(신채호, 조선상고사, 제5편 3장)

이처럼 조선시대 후기까지 광야의 지리적인 특징은 성서에서 나타나는 광야의 이미지와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에서 광야란 단순히 평평하고 넓은 초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광야의 지리적인 특징은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조한 지역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이후 광야라는 표현은 성경의 광야 이미지와 닮아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더 분명한 영향사적 분석이 있어야 하지만, 아마도 성경이 보급되면서 성경의 광야 이미지가 기존 조선시대까지 사용하던 광야에 덧입혀진 것

으로 보인다.

최초의 구약 번역서인 <시편촬요>에서는 이 광야를 ‘들’이라고 표현했고, 첫 공인역본인 <성경전서>에서는 ‘광야’로 표현했으며, 1917년 소설가 현상윤이 <광야>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문화 속에 ‘광야’의 이미지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배경과 과정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공통점은, 성서의 광야신학과 한국 대중문화 속 광야는 지극히 ‘신화적 공간’이라는 점이다. 성서에서 광야는 야웨의 현현과 언약, 그리고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신약에서 예수의 광야 시험은 인간 예수와 성자 하나님 사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영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화적 공간(Mythological Place)은 이미 고대 근동에서부터 신전과 구약의 성전 신학에 내포되어 있다. 이 공간에 참여하는 인간은 무한한 우주적 존재와 수직적으로 조우하면서, 이 공간 안에서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여 우주적이고 신화적인 만남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신화적 공간으로서의 광야는 단순히 지형적 척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공간은 현 세계와 현존재의 유한함을 새로운 자기 초월과 역사 발전으로 극복하게 한다. 성서적 광야신학의 신화적 이미지가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성서와 동일한 모티프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3. 광야 이미지 비교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해석학과 요체화의 장치 공간

성서와 문학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광야’라는 이미지를 현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과연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시대적 틈이 존재하고, 지리적·문화적 차이가 있는 성서의 배경을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여 가르칠 것인가? 단순히 종교적 권위로 주입할 것인가? 이것이 본 연구의 시도 목적이기도 하며, 현대 성서해석학, 성서교육, 그리고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서의 광야신학과 문화 속 광야 이미지를 비교해 보는 일은 공시적이면서도 통시적인 연구 방법의 전환 시도라 할 수 있다. 광야 이미지 비교가 기독교교육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야신학은 성서와 현대 문화의 시간적 간극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 광야신학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광야가 갖는 신학적 의미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광야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성경 속 광야의 의미를 오늘날의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성경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

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대중문화에서 종종 시련, 고독, 자기 성찰의 장소로 묘사되는 광야 이미지는 성경의 광야 경험과도 일맥상통한다. 기독교교육에서 이러한 상징과 비유를 사용하면 학습자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더 쉽게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광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성경의 광야 이야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거의 전통과 현시대의 경험이 만나는 광야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가다머의 ‘지평 융합’(Horizontverschmelzung)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장치가 된다. 학생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의 경험을 내용과 전통을 통해 접하고, 이를 현재의 문화와 경험과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내용의 이해를 넘어 해석과 이해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광야신학은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신앙 발달을 촉진한다. 기독교교육 이론에서 ‘요체화’(Elementarisierung)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성서의 내용과 독자의 경험을 기초적으로 일치시키는 요체화 공간이 될 수 있다. 성서 속 광야는 고난과 시련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현대 독자의 성장과 성숙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광야의 이미지를 기독교교육, 특히 성서 교수학의 분야에서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도전을 성서적으로 해석하고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서 내용에서 재확인하며,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광야신학과 이미지는 일반 대중에게 성서적 이미지를 더욱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문화적 장치가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대중문화에서 광야 이미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성서 광야신학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적 요소다. 기독교교육은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문화와 신앙을 연결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은 보다 친숙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광야신학은 점차 개인화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성서적 공동체와 시민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광야는 개인적인 시련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경험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함께 지나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한국 대중문화에서도 광야를 통해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는 시민사회의 연합을 이끌어냈고, 2020년대에는 메타버스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체’라는 개념은 광야와 함께 이미지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광야신학과 대중문화 속 광야 이미지의 비교는 기독교교육에서 해석학적 이해와 요체화의 실천을 통해 현대 성서 학습자들에게 깊이 있는 성서 해석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보다 확장된 성서 해석으로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성서적 신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 보인다.

V. 나가는 글

본 논문은 성서에 나타난 광야신학의 특징과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광야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기독교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며, 성경의 메시지를 현대적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광야신학은 '부정의 공간'에서 '만남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영적 전환과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며, 이는 대중문화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나타난다.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광야 이미지는 시련과 도전,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변화를 상징하며, 이를 통해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성서의 광야신학과 대중문화의 광야 이미지 비교는 성경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현대 학습자들에게 확장된 성서 이해와 신앙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독교교육이 단순한 종교적 권위의 주입이 아니라, 해석학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개인적 경험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시대적, 지리적 간극을 극복하고, 성서적 내용을 현대 문화와 연계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새로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서 해석과 기독교교육적 적용은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성서적 신학을 유지하는 길을 찾는 것은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독교교육이 더욱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습자들이 현대의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기독교교육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와 문화 속에서 성서의 진리를 살아 숨 쉬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로써 기독교교육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습자들이 더욱 깊은 신앙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우 (2005). **시편주석 2**.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Kim, J. W. (2005). *Commentary on the Psalms, Vol. 2*. Seoul. Chongshin University Press]
- 박지영 (2004). 이육사의 시세계 - 전통적 미의식과 혁명적 실천의 결합. **반교어문연구**, 17, 143-174.
- [Park, J. Y. (2004). The World of Lee Yuk-sa's Poetry - Search for Revolutionary Practice in Traditional Aesthetic Sense. *Journal of Bangyo Language and Literature*, 17, 143-174.]
- 박순원 (2011). 이육사의 「광야」 연구. **비평문학**, 40, 89-114.
- [Park, S. W. (2011). The study of "Wilderness", Lee Yuk-sa's poem. *Literary Criticism*, 40, 89-114.]
- 서재덕 (2021). 성전과 인간-시편의 성전신학. **구약논단**, 79, 97-130.
- [Seo, J. D. (2021). Temple and Human: Temple-theology in psalms. *The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79, 97-130.]
- 서재덕 (2022). 시편의 성전 신학-시편 30편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6, 48-74.
- [Seo, J. D. (2022). Temple Theology of Psalms: Focused on Psalm 30. *Korea Reformed Theology*, 76, 48-74.]
- 이수정 (2013). 70년대 한국 포크 음악에 대한 연구: 양희은과 김민기를 중심으로. 청운대학교 석사논문.
- [Lee, S. J. (2013). A Study on the Korean Folk Music in the 70's : Focusing on Yang Heeun and Kim Minki. Dis. s.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Industry, Chungwoon University.]
- 이육사 (1946). **육사시집**. 서울. 서울출판사.
- [Lee, Y. S. (1946). *Yuk-sa's Poetry*. Seoul. Seoul.]
- 이육사 (2008). **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 박현수 편. 서울. 예육.
- [Lee, Y. S. (2008). *Annotated Complete Collection of Yi Yuksa's Poetry*. ed. Park, H. S. Seoul. Yeok.]
- 조은주 (2017). 이육사의 문학관과 '광야(曠野)'의 사상성- 행동주의, 니체주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2, 153-194.
- [Cho, E. J. (2017). Lee Yuk-sa's View of Literature and Thoughts on Wilderness - Focusing on Activism and Nietzscheism. *The Korean Literature and Art*, 22, 153-194.]
- 최규성 (2008). 양희은 1집 고운노래모음, 1971년 유니버설레코드, 주간한국. 1월 4일.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8371>.
- [Choi, K. S. (2008). Yang Hee-eun's 1st Album: Collection of Beautiful Songs, 1971, Universal Records, Weekly Korea. 4th. Jan.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8371>.]
- Allen, L. C. (1990). **에스겔(상), WBC 28**. 김경렬 역. 서울: 솔로몬.
- [Allen, L. C. (1990). Ezekiel (Volume 1), The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28. Trans. Kim, K. R. Seoul. Solomon.]
- Barth, C. (1987). *Die Errettung vom Tode in den individuellen Klage- und Dankliedern des Alten Testaments. Mit zwei Anhängen einer Bibliographie und Registern. Neuherausgegeben von B. Janowski*. Zürich: Theologische r Verlag Zürich.
- Böhler, D. (2023). *Psalmen 1-50. ATD 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Zenger, E. (1999). Das Mytische in Ps 84 und 85. Eds. Lange, A. *Mythos im Alten und in seiner Umwelt. Festschrift H.-P. Müller*. Berlin: de Gruyter.
- Hossfeld, F. L. and Zenger, E. (2008). *Psalmen 101-102*. Freiburg-Basel-Wien: Herder.
- Janowski, B. (2002). Die heilige Wohnung des Höchsten: Kosmologische Implikationen der Jerusalemer Tempeltheologie. O. Keel. and E. Zenger (Eds.), *Gottesstadt und Gottesgarten: Zu Geschichte und Theologie des Jerusalemer Tempels*. 32-57. Bamberg: Herder.
- Josephus, F. (1987). *The Jewish War II*,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lein, R. W. (2004). **사무엘 상**. 김경렬 역. 서울: 솔로몬.
[Klein, R. W.(2004). Samuel (Vol. 1). Trans. Kim, K. R. Seoul. Solomon]
- Radl, W. (1981). ἔρημος / ἐρημία. *Exe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II*, 128–130. Stuttgart u.a. Kohlhammer Verlag.
- Riede, P. (2001). Tierfrieden. *rhs* 44/6, 352–358.
- Riede, P. (2012). Wüste (theologische Bedeutung). *WiBiLex(Das Wissenschaftliche Bibellexikon im Interne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 Schmidt, W. H. (1992). *Kultsprach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Schmidt, W. H. (2008). *Das Buch Jeremia: Kapitel 1–20. ATD 2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Seo, J. (2021). *Gottesgegenwart im Tempel: Studien zur Spiritualisierung der Tempeltheologie in den Psalmen 29, 48, 68, 74, 84 und 114. ABG 71*. Leipzig: Evangelischer Verlagsanstalt.
- Shemarjahu, T. (1984). *ThWAT IV*, 660–695. Stuttgart. Kohlhammer.
- Spieckermann, H. (2023). *Psalmen-Band 1: 1–49. ATD 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Zenger, E. (1999). Das Mythische in Ps 84 und 85. *Mythos im Alten und in seiner Umwelt. Festschrift H.-P. Müller*. Lange, A. (Ed.). Berlin: de Gruyter.
- Grant, E. (2007). *A History of Natural Philosophy: From the Ancient World to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nkland, R. S. (1964). Michelson–Morley Experiment. *American Journal of Physics*, 32(1), 16–35.
- Leuenberger, M. Jhwh, “der Gott Jerusalems” (inschrift aus Hirber Bet Layy 1.2). Konturen der Jerusalemer Tempeltheologie aus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r Perspektive. *Evangelische Theologie*, 74(4), 245–260.
-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id/kna_13102011_001. [Annals of King Seonjo(선조실록), Vol. 97, 31st year of Seonjo's reign, 11th day of the 2nd month (Byeongin), 1st entry.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https://sillok.history.go.kr/id/kna_13102011_001.]
- 신채호. (1931). **조선상고사**. 제 5편 3장. <https://ko.wikisource.org/wiki/조선상고사/제5편>.
- [C. H. Shin. (1931). Joseon Sangosa., Part 5, Chapter 3. <https://ko.wikisource.org/wiki/조선상고사/제5편>.]
- 자유신문(自由新聞). 광야. 1945.12.17.
[Jayu Sinmun(自由新聞), Kwang-Ya, December 17, 1945.]
- SMTown. (2021). 에스파, ‘광야 브이로그’로 본격 콘서트 카운트다운!. Retrieved July 1, 2024, from <https://www.smentertainment.com/en/newsroom/에스파-광야-브이로그로-본격-콘서트-카운트다운/>.
- SMTown. (2021). SM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브랜드 광야(KWANGYA). Retrieved July 1, 2024, from <https://www.smentertainment.com/newsroom/sm엔터테인먼트-메타버스-브랜드-광야kwangy/>.
- SMTown. (2021). SMCU the Origin. Retrieved July 1, 2024, from <https://youtu.be/PtFnieJ7Imc?si=0GRZsLkWnH40QACF>.
- SMTown. (2021). aespa. 에스파. ep.1 Black Mamba' - SM Culture Universe. Retrieved July 1, 2024, from <https://youtu.be/vbH4Lk5wYWg?si=amBn-J4tXo3i0Qfa>.